

White Lies
Jiyeon Chung
May 11 - June 8 2024

Opening - Feb 19 2025 / 7PM - 9PM

Wed Appointment Only
Thu - Sat 12PM - 7PM
Sun 2PM - 7PM

갤러리 N/A는 5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정지윤 작가의 2번째 개인전 *White Lies*를 개최한다.

정지윤은 설치, 조각, 사운드, 사진 매체를 통해 자아, 편견, 기분과 같은 지극히 자전적인 심리 상태와 사회 현상이 연합되는 조건에 관해 탐구한다. 그의 작업은 대개 소극적인 심술에서 시작한다. 그 어설픈 추동 가운데서 주로 소심한 행패, 은근한 강압 등과 같은 모호한 정서의 정인과 정동에 관심이 있다.

전시 제목 *White Lies*는 선의의 거짓말로, 주로 원활한 관계를 위해 또는 사소한 언쟁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말을 의미한다. 종종 시의적절하다는 이유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말들은 선의의 제스처어라는 명분으로 책임을 방기한다. 좋은 의도라는 발화자의 온전히 자의적인 기준에서 내뿜어진 말들은 편견, 이중 잣대, 방어기제 등 심리적 벽 사이에서 진동한다.

이번 전시에서 정지윤은 과장된 미니멀리즘 방식을 사용하여 N/A 갤러리의 전시 공간 구조와 디자인을 극단적으로 약화시키는 역설적인 전략을 취한다. N/A 갤러리의 메인 공간을 사방으로 절단하고 좁은 복도 공간에 가벽을 세우는 시도는 비대한 나머지 허무하기까지 하다. 이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뿔어진 — 제 댐에는 선의라고 생각한 — 말이 어느 소기의 목적도 불합하지 못하고 흩어져버렸을 때의 허탈함을 공감각적으로 은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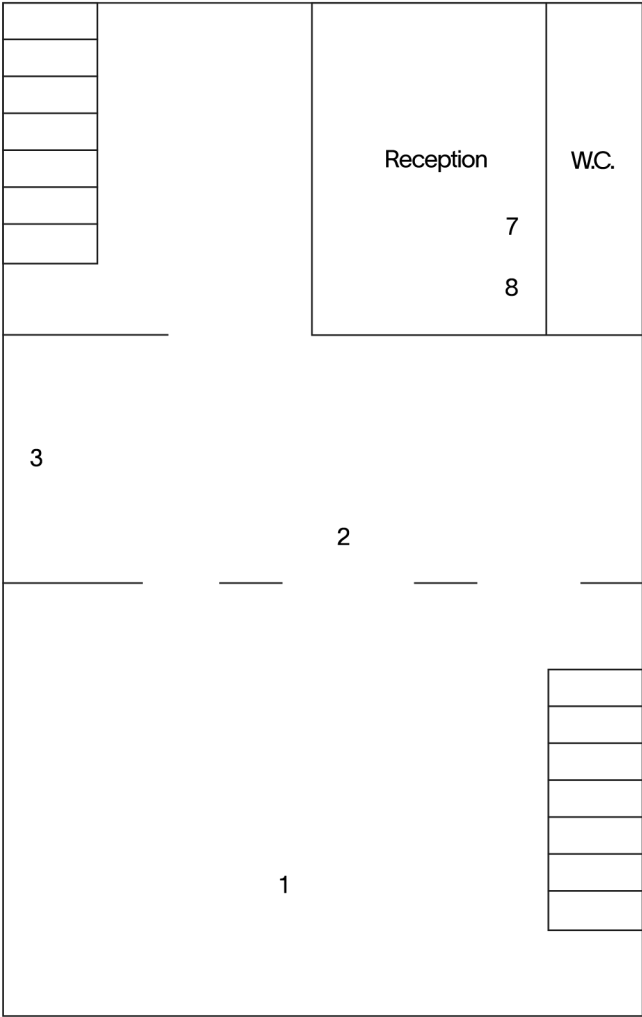
관객은 관람 시야와 동선을 차단당한 채 메인 전시 공간에 비대하게 이식된 방에서 흘러나오는 비명을 듣게 된다. 롤러코스터 승객들의 비명소리로 이루어진 6채널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Condition Reserved*는 집단적 공포와 쾌락의 연속성, 그리고 가독 불가능성을 상기한다.

반대편 방에 설치된 조각 작품 *Work Ethics*는 작가가 본인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서 얻은 단서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평상시 주변 사람에게 ‘본인이 맞았던 ‘사랑의 매’의 종류나 체벌이 기억나느냐’라고 물었는데 회한하게도 ‘사랑의 매’의 모양, 종류, 체벌 방식, 더 나아가 매를 부르는 별칭과 선생님을 부르는 멸칭 또한 지역과 세대를 걸쳐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발견에서 출발한 작업이다. 체벌 도구와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인 당구 큐대, 빗자루, 효자손, 단소, 지시봉, 오리걸음, 앉았다 일어서기, 투명 의자, 감자, 뽕뽕이 등의 표현은 왜인지 모르게 우리에게 익숙하다. 이는 체벌 문화와 방식이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거쳐 공유, 전래되어 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작가는 ‘사랑의 매’라는 호명 전략이 내포하고 있는 수상쩍음, 훈육 과정에서 체벌은 불가피하다는 믿음과 폭력의 무자비한 인상을 ‘사랑’이라는 친밀한 언어로 완화하려는 시도에 집중한다. 그가 제작한 ‘사랑의 매’를 위한 거꾸집 조각은 시대착오적이기를 무릅쓰고 폭력과 훈육 사이의 연속 불가능성 혹은 억지 연계 상징 사이를 경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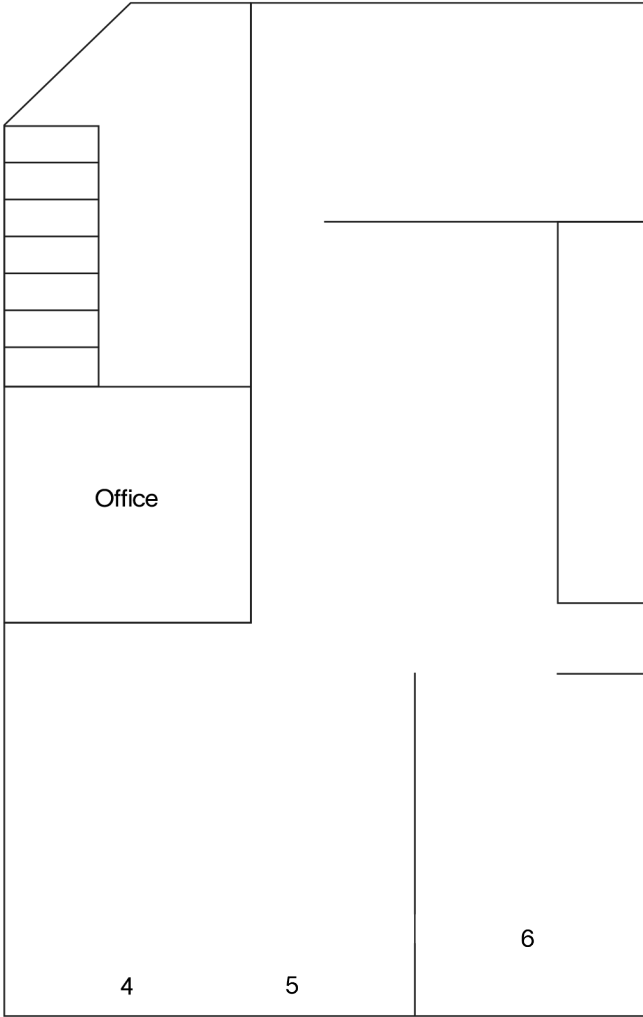
체벌 문화와 엇비슷하게 반성문의 작법 또한 엇비슷하게 공유되고 전래된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등 특히 자주 반복되어 등장하는 문장이 그것이다. 작가는 자신이 실제 저질렀던 범법 행위에 대한 반성을 위해 법무법인, 행정사 사무소, 개인 변호사, 작문가 등에게 반성문 대필을 의뢰하였다. 대필 반성문으로 이루어진 텍스트 작업 *Apology Gifts*는 실제 작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삭제되고 구구절절한 사죄의 언어만 남겨져있다. 이는 진심어린 외피를 쓴 반성의 언어와 시의적절한 반성 작법 전략에 대한 반문이다.

정지윤은 이번 전시 *White Lies*를 통해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아이러니, 쉽게 동화되기 위해 하는 거짓말, 쉽게 동화되는 거짓말, 비대하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없음에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때 등의 심리적 정동을 통해 역설적인 상상과 연상 작용을 자극하는 경험을 선사한다.

정지윤은 2012년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학사 과정을 마치고, 2024년 슈테델슐레 (Staedelschule) 조소과 졸업 예정이다. 최근 개인전으로는 *Condition Reserved*, Kornhaschen, 아사펜부르크, 독일 (2024); *Payday*, N/A 갤러리, 서울, 한국 (2022)이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Rocking Meadows*, Wiesen Kunstverein, 비센, 독일 (2023); *5 More Minutes*, saasfee*pavilion,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독일 (2022); 무저갱, 홀1, 서울, 한국 (2022); *Lash 23*, Nassauischer Kunstverein Wiesbaden, 비스바덴, 독일 (2019) 등이 있다.



- 1. *Condition Reserved, 2024*
6채널 사운드 설치, 나무, 페인트
2분 38초 반복, 가변크기
- 2. *Work Ethics, 2024*
에폭시 레진, 스테인레스 스틸
7.6 x 36 x 1.9 cm
- 3. *Work Ethics, 2024*
에폭시 레진, 스테인레스 스틸
7.6 x 45 x 2.3 cm



- 4. *Work Ethics, 2024*
에폭시 레진, 스테인레스 스틸
7 x 51 x 3.8 cm
- 5. *Apology Gifts, 2024*
사건번호 2018형제37430에 대한 전 경찰 수사과장, 법무법인 변호사, 개인 변호사, 공인 행정사, 시나리오 작가, 작가, 반성문 및 탄원서 전문 작문가가 대필한 반성문 위예인
100 x 130 cm
- 6. *Buds, 2024*
에폭시 레진
가변크기
- 7. *Buds, 2022*
일포드 파이버 베이스 위에 포토그램, 아크릴, 나무 프레임 위에 페인트
29 x 39 cm
- 8. *Buds, 2022*
일포드 파이버 베이스 위에 포토그램, 아크릴, 나무 프레임 위에 페인트
29 x 39 cm